

설날 가정 예배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도.
(시118:1~2)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송 550장 (통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함께

▶ 가족기도문 / 다같이

인도자 :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 가정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 족 :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인도자 : 새해에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분주함보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가 족 : 우리의 말과 태도, 결정과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자 : 가족 모두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연약해진 이들에게는
위로를, 책임 앞에 선 이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 족 : 이 명절의 시간 속에서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 새해의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2026년 한 해 복음 안에서 기쁨 춤추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시편 127:1~2 / 다같이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도다

▶ 말씀 / 인도자

설날은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 더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 잠을 줄입니다. 오늘의 수고를 높이 쌓아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입니다.

1. 하나님이 돌보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세운다’는 표현은 건축하는 것을 넘어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집을 세워감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 붙들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2. 하나님이 지키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새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다면 완전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 뒷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가정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가족을 향한 말과 태도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지키려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정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2절 마지막 말씀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해지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잠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들을 위한다며, 온갖 근심들을 붙잡은 채, 마음을 놓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표지가 바로 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때, 수고는 수고로 끝나지 않고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수고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날 가정예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지키려 애쓰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 가족을 위한 기도 / 대표자

▶ 찬송 435장 (통 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함께

▶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날 가정예배

